

감염병 잡고 골목경제 살리고 남구 ‘투 트랙’ 전략



둔둔한 남구의 ‘코로나 전사들’ 코로나 감염병의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구보건소(소장 허욱) 직원들이 ‘전의’를 다지고 있다.

코로나-19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남구는 전면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쏟고 있다.

#선제적 비상대응체제 전환

남구는 부산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2월 22일 오전, 주요 간부 및 관내 17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자체 재난안전대책 뉴얼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의 임시휴관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놴. 이에 따라 남구국민체육센터, 백운포체육공원, 남구도서관 등 관내 모든 체육·문화시설, 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 즉시 휴관에 들어갔다. 또 구청사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출입 시 발열체크, 명단작성,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공중·공동화장실 45개소와 전통시장 12개소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소독도 마쳤다.

남구보건소 내 비상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검사인원 및 구급차요원 등

재난대책본부·선별진료소 등 전면비상대응체제 전환
 다중이용시설 폐쇄, 방역... 관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긴급 추정 편성·지방세 유예 등 과감한 재정정책 펼쳐
 남구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주민 불안감 차단도 주력

의료 인력을 확대 배치했다. 남구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전달 받은 남구 내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주민을 지원하는 접촉자 관리반도 가동했다. 2인1조로 편성된 관리반은 비대면 방식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같은 의심 증상 여부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한다.

#골목경제 타격 최소화

코로나19 사태로 비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전개한다. 남구는 이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대책도 펼친다.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변호판영치 활동도 잠정 중단한다. 이밖에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일회

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불안감 차단에도 주력

지역사회 동요를 막는데도 행정력을 기울인다.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남구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남구청 홈페이지와 SNS,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했다. 또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남구청장 명의의 긴급담화문을 관내 공공기관,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200여 곳에 게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담화문 발표는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지역사회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남구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 각각 한 명씩 발생했다. 하지만 CCTV 등을 통해 이들 확진자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다행스럽게 이들 확진자들은 이동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관내 주민이나 시설과는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동선 남구홈페이지 공개

남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구 주민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증 상황을 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에 공개하고 있다.

남구보건소 일반 업무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기 위해 남구보건소의 다음과 같은 업무가 잠정 중단됐다. 예방접종,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실, 금연상담실, 제증명(건강진단결과서, 일반건강진단서, 진단서 등) 발급 등 잠정 중단. 문의 ☎607-6460

선별진료소 24시간 상달

음압시설을 갖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남구보건소 광장(주차장)에서 오전9시~오후10시(주말·공휴일도 운영) 운영된다. 업무시간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근무자와 24시간 전화(☎607-6460) 상담이 가능하다.

의심 증상 때 행동요령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 경과를 관찰한 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남구보건소(607-6460)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로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특집

코로나19, 너는 누구나 4면
 골목경제 구출작전 5면
 병균 잡는 사랑의 백신 6면

트램 오륙도선 주민공청회 10면

어느 초보 택시기사의 하루 11면

6·25 70주년 ‘남구의 증언’ 12면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남구청장 긴급담화문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역을 책임지는 구정장으로 먼저 송구한 마음 올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불안감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적 위기사항에 대한 남구 대응상황을 보고 드리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현재 남구는 과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부산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점검하고 준비해온 재난대비 매뉴얼을 즉각 시행했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내에 비상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원, 구급차 요원 등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접촉자관리반을 25개조에서 100개조로 확대해 보건소 대응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필수 행정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투입했고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 등 주민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추정 예상 편성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상황 발생 시 SNS, 재난안전문자,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즉각 통보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4개소로 파악된 신천지교회는 방역과 함께 즉시 폐쇄 조치했고 일선 동장과 통반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규모 포교소(모임방) 파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의 예배시설을 찾아 임시 휴관 등을 요청했고 동참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남구에서 운영 중인 모든 체육·문화 시설과 복지시설을 잠정 휴관하며, 운영 중인 긴급 물품, 급식 부분은 재가 서비스로 전환해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구청 출입구를 일부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 마스크 착용과 17개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장소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남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남구보건소(☎607-6460)로 연락 후 반드시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대처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남구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여러분과 함께 더 희망차고 당당한 남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2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2월 22일 남구는 구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놴.

지역경제 지원 위해 남구 추경예산 긴급 편성

남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SOC사업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소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재배정해 긴급 방역과 대응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남구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투입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안내 홍보물 7만 여부와 마스크 9만 여개, 손소독제 등을 배부했다. ☎607-4022

주민이용시설 대부분 휴관 기관 추가 연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남구는 관내 주민이용시설의 휴관 및 미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남구국민체육센터, 남구빙상장은 3월 8일까지 폐쇄되고 178곳 경로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다. 이밖에 남구도서관,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등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 까지 휴관한다.

관내 시설 휴관, 미운영 안내 6면

코로나19 검사 거부·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

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